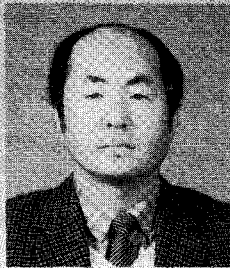


수입개방 그 이후



배성황
(주) 삼화농원 대표이사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질적인 면에서도 계육산업을 주도할 계열업체들이 비교적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생계 생산원가 생산에 투입된 개별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계열화의 효율성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계열업체들이 수입계육과의 질적인 경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 년전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황하는 때와 비교한다면 시험준비를 한 것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본 수험생에 비교하고 싶다.

둘째, 종계·부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나 적극성이 떨어진 반면에,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종계 성적이 10~20%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종계장마다 검토해보고 향후 능력이 되는대로 확장보다는 농장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병목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낱알이 발전하는 사양관리 기술을 터득하여 국제수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 각 농장의 문제점을 숨기기만 하지 말고, 개방하여 타 농장의 정보와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하겠다.

셋째, 육계농장은 최근 계열업체의 상대 평가로 인하여 성적 향상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설이나 사양관리, 위생 및 사업의욕에 이르기까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익성이 숫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당 몇 원이나 몇 전 또는 생산성이 0.··%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아직도 일반적인 수요 체중이 1.5kg 내외의 육계를

WTO, 국제 경쟁력, 수입개방이란 단어들 이 이제는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동안 그에 대비한 수많은 정책과 준비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그 동안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이나 축산업에 쏟았던 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열심히 준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수능성적을 받아보듯이 양계산물 수입이 개방된 현시점에서 평가해보고 향후의 보완적인 대책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우선 계육산업 측면에서 보면 첫째, 계열화

하기 위하여 대형종 병아리가 활용되고, 서로 특성이 다른 병아리 품종을 동일한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국제 수준에 비하여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효율을 올린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정부의 정책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쉬운 부분이다. 우선 국제 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제반 조건이나 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토지, 건축, 세제, 에너지 정책 등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여 물량면에서 과잉생산으로 연결되는 세련되지 못한 지원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각종 제도, 기간산업의 확충 및 유통개선 등을 통하여 간접 지원되고 그 효율을 생각하는 정책이 이쉽다. 최근 종계나 종란 수입을 조절하면 국내 양계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무조건 민원 해소 차원의 정책만 생각한다는 것은 양계산업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특히, 최근 광우병, 구제역, 돈 콜레라 등 소비자가 식품 위생을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장래의 축산물 소비를 고려하여 양계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를 과감하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소모성 질병, 해외에서 발병하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관리와 유입차단 연구 등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 투자 효율이 좋은 사업일 것이다.

다섯째, 닭고기 대일 수출 전담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인 수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수출로 반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현상이다.

일본과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냉장 닭고기는 분명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행히 축산기술연구소의 주도와 계열업체의 수출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다행히도 국내 업체의 기투자된 일부 시설과 기술들은 국제 수준으로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므로 연관 업체들끼리 잘 협조가 되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얼마든지 한 차원 높은 산업으로서 안정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벽한 제품을 요구하는 시장이므로 시행 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육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던 수년 전에 비하면 수입개방의 실체를 체험해본 지금, 체험의 실체가 아닐지 모르지만 산업으로 남아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닭고기 대일 수출을 비롯하여 연관 제품의 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다. 어떻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이용하느냐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앞으로 수년 후 수입개방에 따른 양계산업을 다시 평가해 보자. 그때 양계산업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발전된 사업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 하에서 양계산업을 선진국이 된 화란의 선례를 보고 용기를 갖자. **양계**

● 정정합니다 ●

· 지난 11월호 편집위원칼럼(김정인 신촌사료(주)부사장 집필)내용중 45쪽 2단 11번째줄 강하다 를 약하다로 정정합니다.
→ 그러나 곰팡이독소(아플라톡스)에는 닭보다 몇십배 약하다.